

지역 소식통

고창군 '대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준공식

민선 8기 고창군의 역점 사업인 '군민 생활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농촌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고 있다.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성송면 삼태마을 일원에서 '대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준공식'을 열었다. 대산 하수관로는 성송면 무송리, 산수리, 하고리 일원의 생활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사업이다. 국비 102억원, 지방비 43억원 등 총 145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8개마을 신규 하수관로 14.8km가 매설됐고, 228가구에 배수설비가 설치됐다. 기존에는 생활하수가 인근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들면서, 여름철이면 냄새도 많이 났고, 모기나 파리, 갈라파우 등도 날아들면서 큰 골칫거리였다. 무엇보다 하천 물로 농사짓는 주변 논·밭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 하수관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농촌미관개선 및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천 청소년물놀이장 미로분수 7월 6일부터 운영

정읍시가 도심 속 물놀이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던 '정읍천 청소년물놀이장'을 올해부터는 운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읍천 물놀이장은 정읍시내를 가로지르는 도심 속 생태하천인 정읍천을 활용해 조성된 시설로, 여름철 일 평균 2~300명씩 즐겨 찾는 명소였다. 하지만 그동안 물놀이장 내 미끄럼틀이 하천 불법시설물로 간주돼 지난해 8월 철거됐고, 이에 따라 물놀이장을 앞으로도 운영할 수 없게 됐다. 물놀이장 폐장에 따라 시는 정읍천 정주교 하류에 조성하고 있는 '정읍천 미로분수'를 물놀이장 대체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다. 미로분수는 음악분수 공연, 물놀이 바다분수, 거울연못 등을 연출할 수 있는 복합형 바다분수로, 이달 안에 완공돼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조선왕조실록 수호자들 헌신 되새기다

정읍시, 22일 내장산 우화정서 안의·손홍록 희생·헌신 기려

조선왕조실록의 수호자들, 내장산에서 그날의 헌신을 되새기다.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정읍의 선비들을 기리기 위한 행사가 정읍 내장산에서 개최된다. 정읍시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정읍의 역사적 인물 안의(安義)와 손홍록(孫弘祿)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내장산 우화정 앞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역대 왕조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실록은 춘추관, 충주·전주·성주사고 총 4곳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1592년(선조 25년) 임진왜란이 발발하며 전주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고는 병화로 소실됐다. 안의와 손홍록은 전주사고의 실록과 태조 어진을 지키기 위해 전주 경기전에서 정읍의 내장산

용굴암으로 이안했고, 보존터에서의 일상을 일년여 간 기록해 수직상체일기를 남겼다. 두 선비의 헌신으로 무사히 지켜진 실록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고, 실록 보존터(용굴암, 은적암, 비래암)는 2015년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다. 수직상체일기는 안의 선생 후손의 기탁으로 정읍시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8년 두 선비의 헌신을 높이 평가해서 전주사고에 있던 실록과 어진을 정읍 내장산으로 옮긴 6월 22일(당시 기준 음력)을 문화재 지킴이의 날로 지정했다. 이번 행사는 안의와 손홍록 두 선비가 실록과 어진을 내장산 용굴까지 옮긴 역사적인 순간을 재현하는 행사로 내장산 일주문부터 용굴암까지 전통

의상(평민복)을 입고 행렬을 진행한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이안 행렬 체험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역사의 한 장면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접할 수 있다. 정읍문화원은 2020년부터 조선왕조실록 이안길 걷기 행사를 추진해왔고 2020년~2021년에는 전주 경기전에서 내장산 용굴암까지 약 66km를 걸으며 1박2일 간 이안 체험을 진행했다. 2022년부터는 매년 6월 22일 문화재지킴이의 날에 맞춰 기념식과 이안 행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정읍 향토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정읍문화원과 함께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향토사를 발굴해 역사·문화적 가치를 드높이는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진 발생 심리적 안정 지원 추진"

권익현 부안군수, 월요간부회의서 지진 발생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 강조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진 발생 국민행동요령 홍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대책을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17일 열린 월요간부회의에서 "지난 12일 올해 최대 규모이 지진이 부안에서 발생했다"며 "이제 우리 지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에 군민 모두가 큰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추가 지진 발생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관과 민의 협력을 철저히 해 달라"며 "군민 안전을 위한 지진 발생 국민행동요령 홍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추가 지진 발생과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장마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땅밀림 취약지,

저수지 등 지진 취약지역과 시설물에 대해 긴급 보강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며 "예찰활동도 한층 더 강화해 군민의 안전이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부안군은 지난 15~16일, 직원 484명을 2인 1개조로 편성해 12개 읍면(위도면 제외) 484개 마을을 찾아 추후 발생 가능한 여진에 대비하기 위해 붕괴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지역 등에 대한 예찰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아이 낳기 좋은 부안을 만들기 위해 임신 전부터 출산 시까지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담당부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부안 만들기를 목표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홍덕제하교차로 세계유산도시 경관조형물 제막식 개최

고창군, 주요 진입부 환경개선 '세계유산도시 고창' 홍보 효과

고창군이 17일 오전 10시 홍덕면 제하사거리에서 '세계유산도시 고창'을 상징하는 경관조형물 제막식을 개최했다. 제막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김만기·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홍덕면 기관사회단체장, 지역 주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고창군을 상징하는 경관조형물은 고창 주요 진입부인 제하사거리에 설치됐다. 정읍, 부안 등에서 고창으로 진입하는 모든 차량이 경관조형물을 마주하도록 설치해 세계유산도시인 고창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경관조형물은 고창군의 주요 관광자원인 고인돌, 갯벌, 세계지질공원, 전지역생물권보전지역, 고창읍성 등을



고창군이 17일 오전 홍덕면 제하사거리에서 '세계유산도시 고창'을 상징하는 경관조형물 제막식을 개최했다.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또한, 조형물 하단부에는 고창갯벌에서 만날 수 있는 뽕재비갈매기와 소라, 바지락 모형을 부착해 "이제 고창

에 들어섰으니 지금까지와는 다른 최고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아간에도 조형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경관조형물 설치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학수 시장, "제반 여건 변동사항 반영해 사업 추진 시 차질 없게 해야" 강조

이학수 정읍시장은 17일 오전 영상간담회의를 갖고 "각종 사업 추진 시 불가 상충분 등 제반 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게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름철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식중독이 우려된다"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안내해 시민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했다. 더불어 이 시장은 "폭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중 운영질환을 예방하도록 야외 활동 근로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해 행동 요령 등을 홍보하라"고 했다. 이어 "특히 노인일자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근무시간을 조정해 폭염 시간대는 피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리관하이 세계요트연맹(World Sailing) 회장이 17일 부안을 방문해 권익현 부안군수와 대화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리관하이 세계요트연맹 회장, 부안 방문 해양레저스포츠 발전방안 등 논의

리관하이 세계요트연맹(World Sailing) 회장이 17일 부안을 방문해 권익현 부안군수와 대화를 갖고 해양레저스포츠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리관하이 회장은 2024년 아시아컵 및 제9회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방문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부안의 해양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요트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리관하이 회장은 부안의 아름다운 해안선과 우수한 해양환경을 높이 평가하며 "부안은 해양스포츠의 중심지로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세계요트연맹은 부안이 국제적인 요트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현 군수는 "예기치 않은 지진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대회가 제대로

치러지지 못해 아쉽다"며 "부안은 이미 다양한 해양스포츠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고 리관하이 회장의 방문과 지원 약속은 부안의 해양스포츠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계요트연맹과 긴밀히 협력해 부안을 글로벌 해양스포츠 허브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세계요트연맹은 전 세계 요트 경기를 총괄하는 국제기구로 요트 경기를 통한 해양스포츠 발전과 환경 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군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중 요트 대회 교류,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양스포츠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